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1월 30일(금)
(음력 12월 12일)
Пятница
30 января 2026 г.
№ 4 (1217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테크' 캠퍼스 학생 기숙사 마을이 공식 개관 (이예식 기자 촬영)

푸틴 대통령 ·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테크' 캠퍼스 학생 기숙사 공식 개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테크' 캠퍼스 학생 기숙사 마을이 공식 개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이번 기념 행사에 참여했다. 해당 내용은 사할린주 정부 공보실이 전했다.

선도적인 '사할린테크' 캠퍼스는 국가 수반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전역에 건설 중인 현대식 캠퍼스 네트워크의 일부다. 2036년까지 러시아에는 총 40개의 최첨단 대학 캠퍼스가 문을 열 계획이다. 첫 단계로는 2030년까지 25개의 캠퍼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 바우만 모스크바 국립 공과대학교 캠퍼스가 완공돼 운영 중이며, '청년 및 아동'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4개의 추가 캠퍼스에 대한 건설 및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화상 연결을 통해 사할린주를 포함한 3개 지역의 프로젝트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첫 단계는 2030년까지로 계획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1,500억 루블이며, 이 가운데 40%가 넘는 금액이 연방 예산에서 할당됩니다. 지금 지역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역 차원에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향후에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 연방 센터, 지역, 그리고 관련 기업이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국가에 꼭 필요한 최종 성과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료들이 방금 지적했듯이, 이는 단순한 전통적 기숙사가 아니라 교육을 이어가고, 휴식을 취하며, 스포츠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일부입니다. 이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대통령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1월 25일 러시아 대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들과 교수진, 대학 및 전문학교 교직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가 수반에게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사할린테크' 캠퍼스 1단계 시설인 1,500명 수용 규모의 학생 마을이 2025년 계획대로 준공됐다. 해당 시설은 스틸로바트(기단부)로 연결된 9층 건물 3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차 구역 입주가 완료됐다. 학생들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 블록에서 생활하게 된다. 각 생활 공간은 2인실 2개와 화장실, 샤워실, 주방으로 구성됐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남은 두 동의 건물도 단계적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현대식 학생 마을의 조성이 사할린주와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사할린 국립대학교가 도서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미 오늘부터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대학 운영을 비즈니스 수요에 맞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와 무인 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을 지역에서 시험하고 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할린주와 극동 전반의 경제 및 과학 역량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말했다.

주지사는 사할린주가 과학·교육 분야에서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2025년 사할린 국립대학교를 극동 지역 내 '가스프롬'의 거점 대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할린주 대학은 바우만 모스크바 국립 공과대학교,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 금융 그룹 '시스테마'와 함께 수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베르'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스쿨 21'을 개교했다.

현재 사할린 국립대학교를 기반으로 대륙붕 프로젝트와 수소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최첨단 공학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주요 대학인 이곳은 석유·가스 및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과학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공동 자금 조달을 위해 러시아 과학재단의 공모 심사에 제출됐다.

"가스프롬뱅크와 공동으로 석유·가스 분야 과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실험실을 갖춘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또한 '가스프롬 도브차 셸프', '가스프롬 인웨스트 셸프'와 함께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산업 파트너들과 협력해 총 12개의 실험실과 지식재산권 센터를 구축했으며, 인공지능 센터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교통, 환경, 보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70개 이상의 도구가 도입됐습니다. 이 모든 이니셔티브는 주지사의 지원 아래 실현됐습니다."라고 알렉세이 오그네브 사할린 국립대학교 총장 대행은 전했다.

2026년에는 사할린 국립대학교에 석유·가스 화학 분석 실험실이 가동될 예정이다. 해당 실험실은 이미 한 석유·가스 기업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주했다. 현재 수소 에너지 학과 개설도 추진 중이다.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산업 파트너들의 공동 프로젝트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학은 '사할린 에너지'와 협력해 대륙붕 프로젝트를 위한 석사 과정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2,4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사할린테크' 캠퍼스의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설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면적 6만 8천㎡가 넘는 이 시설에는 강의동과 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연구·실험동, 도서관, 회의장, 공공·업무 공간, 온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신

사할린주 경제, 안정성 입증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 부총리 겸 대통령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의 주재로 1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극동 및 북극 개발 공사 지도부, 극동 지역 수장들, 연방 기관 및 개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극동 사회경제 발전 성과(2025년)와 2026년 우선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는 지역 경제 발전 동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2026년 1월 1일 기준 사할린주가 극동연방관구 국가 프로젝트 이행 지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 전체에서는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러한 성과가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 접근성 향상, 인구 증가 및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사할린 전역서 '봉쇄의 빵'캠페인… 레닌그라드 기억

1월 27일 레닌그라드 봉쇄 해방 82주년을 맞아 사할린주 전역에서 전국 추모 캠페인 '봉쇄의 빵'이 진행됐다.

윤아르미야 청소년 단원들은 대조국전쟁 당시 레닌그라드 봉쇄 시기의 추모 상징으로, 당시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최소 식량 배급량인 125g의 빵을 나눠주었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섬 주민들이 봉쇄 기간 레닌그라드 시민들의 영웅적인 희생을 기렸다.

주지사, 자원봉사자들과 정기 간담회 진행

'보살핌·보호·존중'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26일(월)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만나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와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주지사는 이날 만남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행복한 모성' 프로젝트 연장과 가스 공급 확대, 의료 시스템 개혁, 첨단 의료 기술 도입 등 향후 추진할 다양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사할린 남부 타라나이에 최신식 하수 처리 시설 가동

지난 1월 26일(월), 아니와 지역 타라나이 마을에 하루 200입방미터 처리 능력을 갖춘 최신식 하수 처리 시설이 문을 열었다.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주지사는 해당 시설을 아니와 만의 환경 보호를 위한 일련의 사업 가운데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현재 아니와시와 코르사코브시, 노워트로이츠코예 마을에서도 유사한 시설이 건설 중이며, 이들 시설은 올해 안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지사는 이번 시설 운영을 통해 어업과 휴양,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할린에서 평양까지: 전략적 동반 관계 잇는 관광 협력

2026년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독특한 사업이 사할린주와 조선반도를 잇게 될 전망이다. '아르세날' 그룹의 천영곤 대표는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평양-사할린 프로젝트' 유한회사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해당 사업이 특별한 지위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25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관광총국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아 정기적인 관광 및 문화 교류를 조직하는 핵심 운영사로 지정됐다. 이는 양국 간 교류를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여는 한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정신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할린 주민들은 이르면 올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양지로 향하는 새로운 관광 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행 참가자들은 독특한 자연경관과 세계유산, 민족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추진자들의 목표는 단순한 명소 방문에 그치지 않는다. 전통 예술과 민족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공동 행사를 조직해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사회적 사명이다. 비영리단체 '세르차 조브(마음의 부름)'와의 협력을 통해 고려의학을 활용한 전통 치료 프로그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운영하며, 특수 군사 작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재활 및 요양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인도주의적 협력 관행을 논리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새로운 여행 상품을 넘어선다. 지역 간 대화를 심화하고 민간 차원의 친선 관계를 강화하며,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살아 있는 가교로 기능할 전망이다. '평양-사할린 프로젝트'의 성공은 지역 이니셔티브가 공동의 전략적 목표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동 지역 전반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통신원

'착한 일의 날' 바자회서 장애 아동 위해 30만 루블리 모금

1월 24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티몰 쇼핑센터에서 '3D: 착한 일의 날' 대규모 바자회가 열렸다. 러시아 민족 단합의 해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장애 아동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사회단체와 교육기관, 창작 단체, 소상공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서는 사할린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 다채로운 마스터 클래스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 내내 무대에서는 도시의 예술 단체와 솔로이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노래와 춤,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동예술학교 '에트노스'의 러시아 민속과와 한민족 문화예술과 학생들의 공연은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김아연(9세, 유즈노사할린스크 어린이음악학교 성악과)의 보컬 솔로 무대 역시 인상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코윈(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할린 지역 지부와 '인복' 스튜디오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스에서는 한민족의 맛과 전통을 소개했다. 방문객들은 떡과 젤리, 매운 김치, 달콤한 다시마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복을 모티브로 한 카드 만들기와 주먹밥 만들기 마스터클래스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최금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러시아 지역장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음식과 예술을 통해 한민족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우리 부스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전액 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성금은 총 30만 루블 이상으로 집계됐다. 모금된 모든 자금은 장애 아동들의 치료와 재활 보조 장비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상호 도움과 창작을 통한 연대에는 국경이 없으며, 각 민족의 문화가 하나의 선한 목표를 향해 소중한 기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코르사코브, 임산부를 위한 무료 아쿠아 에어로빅 강습 시작

코르사코브에서 예비 엄마들을 위한 아쿠아 에어로빅 수업이 시작됐다. 이번 무료 수업은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의 제안으로 추진된 지역 프로그램 '행복한 모성'의 일환으로, 스포츠 학교 '플라그만'에서 마련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6년 임신 기간 여성 지원을 위한 핵심 방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첫 수업은 이미 시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임신부 대상 교육을 위해 스포츠 학교는 두 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했다. 수업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며, 관리자가 수영장 이용 현황과 강사 일정을 고려해 참가자에게 편리한 시간대를 배정한다. 참여 조건은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훈련 프로그램은 임신 중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구성됐다. 수중 운동은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근력을 강화하며, 심혈관 기능을 지원해 부종과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컨디션을 개선하고 출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준비하는 데 기여한다.

첫 수업에 참여한 임신부들은 새로운 방식의 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그룹 수업은 추가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이들은 임신부만을 위한 아쿠아 에어로빅 수업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플라그만' 스포츠 학교의 수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학교 측은 새로운 참가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수업 일정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8(42435) 4-04-15 또는 스포츠 학교 행정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аквааэробикой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запустили в Корсакове

В Корсакове стартовали занятия аквааэробикой для будущих мам. Беспла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е «Флагман»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которую запустил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2026 году этот проект стал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держки женщин в период беременности.

Первые занятия уже прошли в пилотном формате. Для работы с беременными в спортшколе подготовили двух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писаться на тренировки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 администратор подбирает удобное расписание с учетом загруженности бассейна и графика тренеров. Единственное условие для участия — отсутствие медицинских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Программа тренировок учитывает особенности организма во время беременности. Занятия в воде снижают нагрузку на позвоночник и суставы, укрепляют мышцы, поддерживают работу сердца и сосудов, помогают уменьшить отеки и боли в спине. Регулярные тренировки также улучшают самочувствие и помогают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родам физически и эмоционально.

Участницы первых занятий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и новый формат. По их словам, тренировки в группе д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мотивацию и помогают расслабиться. Многие отмечают, что раньше не знали о возможности заниматься аквааэробикой именно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Занятия во «Флагмане» продолжаются, и спортшкола готова принимать новых участниц.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расписании и записи можно узнать по телефону 8 (42435) 4-04-15 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닙흐족 화가 표도르 믜군의 전시회 1월 20일 오하에서 개막

오하 시 향토박물관에서는 장식 및 응용 미술의 거장이자 러시아 민족언론협회 사할린 지부장인 표도르 믜군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포털 '민족적 악센트'에 게재됐다.

'새로운 길'이라는 뜻의 '추즈 디프' 전시는 관람객들을 거장의 예술적 성취와 닙흐족(사할린 원주민 북방소수민족) 문화유산 연구의 세계로 이끄는 흥미로운 여정을 선사한다. 표도르 믜군은 독창적인 사할린 예술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박물관 관람객들은 작가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따라가며, 수백 년에 걸친 전통이 어떤 방식으로 현대적 해석을 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표도르 믜군은 화가이자 그래픽 작가로, 목공예와 채색, 닙흐 전통 문양 조각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요 작업 분야는 그래픽 작품을 비롯해 유화와 수채화다. 특히 백조 실루엣 형태로 제작된 그의 대표적인 문양은 섬에 거주하는 닙흐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전시는 2026년 2월 21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Выставку нивх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Федора Мыгуна открыли в Охе 20 января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для просмотра по 21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города Оха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творения мастер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Гильдии межэтниче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Федора Мыгуна. Информацию об этом опубликовали на портале «Национальный акцент».

Выставка «Чуз Диф», что в переводе означает «Новый путь», представит посетителям увлекате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мир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достижений мастера и исследований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ивхов. Федор Мыгун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новому взглянуть на самобытное сахалинское искусство.

Гости музея смогут проследить эволюцию авторского стиля и увидеть, как многовековые традиции обретают новую интерпретацию.

Федор Мыгун — художник, график, мастер резьбы и росписи по дереву и вырезанию нивхских орнаментов.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работы мастера являются графические работы, живопись маслом и акварелью.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его знаменитый орнамент в виде силуэта лебедя, стал настоящим символом островных нивхов.

러시아 대학생의 날 맞아 사할린 우체국 '타치아나' 통계 공개

1월 25일은 '러시아 대학생의 날', 또는 '타치아나의 날'로 불린다. 이를 기념해 러시아 우체국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타치아나'라는 이름의 여직원 수를 집계한 이색 통계를 공개했다.

사할린주에는 약 3,000명의 우체국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다수가 여성이다. 이들 중 약 7%가 '타치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별로 보면, 13명의 타치아나가 집배원으로 일하며 매일 우편물 배달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17명은 지점 창구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와 민원 처리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타치아나'라는 이름의 여성 8명은 우체국장으로 재직 중이며, 36명은 주 우체국 관리 부서와 각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11명의 타치아나는 간선 분류 센터에서 우편물 분류 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 명의 타치아나는 수석 엔지니어로, 또 다른 한 명은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 우체국 지역 본부는 "여성 직원들은 집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점과 정식 고용, 직원과 자녀를 위한 각종 방과후·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 보장 혜택에 매력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혜택에는 휴양 시설 이용권 보조, 신년 선물, 질병 및 사고 보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추가 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Сотрудниц почты по имени Татьяна пересчит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ко Дню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25 января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или Татьянин день.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Почта России подготовила необычную статистику, сосчитав, сколько в отделениях работает сотрудниц с именем Татьяна.

(8면에 계속)

[리뷰] 토박이를 만나다

겨울밤이 깊었다. 당장이라도 큰 눈이 내릴 듯 하늘은 검은 회색빛, 싸락눈이 매서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불빛 환한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토박이Местные』를 보기 위함이었다.

지난 21일 늦은 7시. 이미 가득 찬 객석에서 더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첫 화면은 흥미롭게도 271명의 이름이 적힌 '사할린달력 보내기 후원자 명단'이었다. 개인당 1만원씩 모으자고 한 것이 1200여만원이나 되었으니 후원의 너비와 깊이가 만만치 않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젊은 영화감독 안톤 도카와 세르게이 하 프로듀서가 제작한 영화 토박이를 한국에서 상영하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그 시작을 제주에서 하게 되었다. 달력 제작과 배송 외에 남은 돈 490여만원은 사할린 한인연합회 회장이자 제주의 며느리인 고영순(작고한 남편의 이름은 고운용)에게 전달되었다.

영화는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담았다. 그들이 왜 고향을 떠나 이름조차 낯선 남화태南樺太(남사할린)에 가게 되었는지, 어쩌다 국적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무국적을 거쳐 다시 러시아로 바뀌게 되었는지, 마찬가지로 그들의 상용어가 조선말에서 일본말로 그리고 다시 러시아말로 바뀌게 되었는지 영상과 사할린 출신 한인韓人 및 한인 연구자 36명의 발언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사할린뿐만 아니라 한국, 러시아 소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이어졌고, 시야는 사할린 곳곳을 헤매이다 한국, 일본, 소련,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던 해에 필자는 이렇게 썼다.

1945년 광복이 되어 온 나라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사할린의 한인들 역시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기쁨을 만끽할 충분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 해방이 되어 번듯한 독립국가가 생겼으니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야 시간문제 아니겠는가? 패망한 나라 일본 사람들이 줄줄이 귀국선을 타고 있을 때 한인들은 곧 자신들을 데려갈 배를 기다리기 위해 코프샤코프 일명 망향의 동산에 올랐다. 그러나 사할린의 한인들을 태우고 갈 배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장하던 일본의 외면과 조국의 무관심에 따른 무국적자 신세였다.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남부까지 독차지하게 된 소련은 한인들에게 소련 국적을 강요했지만, "혹시라도 적성국가의 국민이 되면 고향(남한: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많다)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끝내 무국적자로 남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1890년 사할린을 방문한 안톤 체호프는 그곳을 "러시아에서 가장 비참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 저주받은 땅에 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39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꼬임에 빠진 까닭이었다. 이후 사할린의 상황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더 이상 아무도 모집에 응하지 않자 일제는 1942년 관에서 알선 형식으로, 그리고 1944년에는 무차별 강제 징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1만여 명은 사할린에서 다시 일본 내지로 이중 징용을 당해,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는 근대건축물, 이른바 군함도까지 끌려갔다.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는 이들이 수천 명. 1945년 일본 패전 당시 사할린에 남은 한인은 대략 4만3천여 명이다.

영화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

첫째, 사할린 동포 일부가 귀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992년 일본 적십자사가 돈을 대고, 한국 정부가 땅을 내놓아 정착촌을 만들어 1945년 이전 출생자만 영구 귀국할 수 있도록 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할린 한인들의 갈망과 이에 따른 끝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고마운 이는 '사할린 동포의 우편배달부'라는 애칭이 붙은 박노학 선생이다. 사할린 출신으로 일본에 거주했던 그는 사할린 동포가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 한국 고향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아들 박창규 선생 또한 그 일을 함께 했다. 그들 부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과 러시아, 사할린을 잇는 사할린 이산가족 찾기를 KBS 주관 사할린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가능했던 것이다.

왼쪽으로부터: 안톤 도카 감독, 필자, 세르게이 하 프로듀서.

둘째, 사할린 동포 3, 4세대는 한국어를 잘 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1945년 해방 전이나 해방 후에도 한인들은 한국어에 능숙했고, 자제들을 위해 조선어학교를 세우고, 우리말과 글을 가르쳤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가고, 러시아가 들어왔다. 아이들은 커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한인들은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한국어교육 대신 러시아어교육을 선택했다. 한인들이 원치 않았던 현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셋째,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 올림픽은 소련이 참가하여 전국에 방영됨으로써 사할린 한인들이 서울의 발전상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전까지 유일한 귀국선은 북한으로만 향했다. 북한으로 간 이들은 북송선을 탔던 재일동포와 마찬가지로 '잘못 왔다'고 느껴야만 했다. 1990년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면서 비로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고, 다시금 한국어 교육과 문화 활동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연방 문화 공로자인 나탈랴 에이디노바 교장이 세운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에 1995년 한민족문화과가 생겨 한인 아이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게 된 것이 한 예이다.

넷째, 현재 안산과 김포에 사할린에서 귀국한 이들이 거주하고 있다. 동포 1세는 거의 돌아가시고, 대부분 2세 분들이다. 이젠 이분들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다. 그들의 자식과 손주들은 지금도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운 고향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들은 또 한 번 가족 간의 생이별을 겪어야만 했다. 그저 아이러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직항이 있었으나 지금은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 중국을 거쳐 가야만 한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여정이니 노인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 직항이 생기면 가장 좋겠고, 만약 지속된다면 1년에 한두 번 전세기라도 띄우는 것은 어떨까?

영화가 끝나고 관객과 영화감독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객석에서 누군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사할린 한인, 재일동포, 중앙아시아 고려인, 중국 조선족 등등. 우리는 잊고 살았지 않았나? 오해하거나 애써 무관심하고, 심지어 조선족의 경우처럼 혐오하지 않았나? 퍽퍽한 우리네 삶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세상은 거대한 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쪽이 끊어지면 다른 한쪽도 그리된다. 우리 동포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까닭에 이번 영화 「토박이」는 여러 가지를 새삼 느끼게 만들었다.

돌아오는 길 여전히 밤은 어둡고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우리 함께 있음을 느꼈음으로.

심규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동대학원 중문학 박사. 제주국제대 교수, 중국학연구회, 중국문학이론학회 회장 역임. 현 제주중국학회 회장, 별꼴학교 이사장

(출처: 제주의 소리)

[동포의 창] "모국정착 궁금증 한눈에"… 사할린동포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재외동포청, 영주귀국부터 국적 취득까지 실무 사례 중심 문답 풀이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Q&A 사례집'(국문본, 러시아어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사할린 동포 전담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실제 접수된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영주귀국 신청 방법부터 국적 취득, 건강보험, 주거 지원 등 동포들이 한국 생활 중 직면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알기 쉬운 문답식 풀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주귀국 대상과 관련해 1세 동포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주(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동반 귀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자녀 사망 사실을 증빙할 서류만 있다면 외손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담았다.

또한 동포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서류 준비 절차도 상세히 안내한다. 러시아와 한국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해 동일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영주귀국 재신청 시 아들의 출생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는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배우자의 혼인 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최신 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등 실무상 유의 사항을 강조했다.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는 사할린 동포 1·2세는 국적 판정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3세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국적 판정 심사 기간(약 4~7개월)에도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 동포들이 실제 상담 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국내 생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내 해외 체류 시에는 자격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돼 재입국 후 재가입해야 한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적 취득이 지연되어 임대주택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구제 방안 등도 소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사례집을 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명무

관리번호	953237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명 무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97-03-01	사망년월일	(1938)
본적	평안북도 강계 곡하		

공훈록

김명무는 1897년 평북(平北) 강계(江界)에서 태어났다. 이후 1919년 12월 30일 러시아 스보보드니[自由市]에서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에 입영(入營)하였다.

고려혁명군은 3.1운동 이후 노령과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편성된 부대로 1921년 자유시참변을 거친 뒤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후 주둔지였던 극동공화국 아무르주 스보보드니를 떠나 이르쿠츠크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고려혁명군은 한,중 국경지대로 진출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후방의 안전지대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훈련에 종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정치 훈련에 매진한 것이다.

1922년 하반기 고려혁명군은 연해주 해방전쟁에 참전하였고 내전 종료 후 소비에트 러시아당국의 비정규 무장부대 해산방침에 따라 해체되었다. 그 뒤 고려혁명군의 일부 구성원들은 러시아 적군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재소련 한인들로 구성된 러시아 적군 제76연대의 근간이 되었다.

고려혁명군에 입영하기 전 김명무는 농업에 종사하였고 이후 고려혁명군의 제3연대 제3대대에서 중대장, 부관 겸 교관 등으로 노령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더불어 '순직한 사람, 부지런하고 간사가 없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신망'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料(국가보훈처, 1997) 제5권(러시아篇) 311~312, 354~355, 362면

· 한국독립운동사사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제3권 244~247면

· 한국사회주의의 기원(임경석, 2003) 337~348, 419면

· 1920년대 초 연해주에서의 고려인의 민족운동-김승빈과 남만춘의 자료를 중심으로(전, 뷔또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한국학연구 5집 187~197면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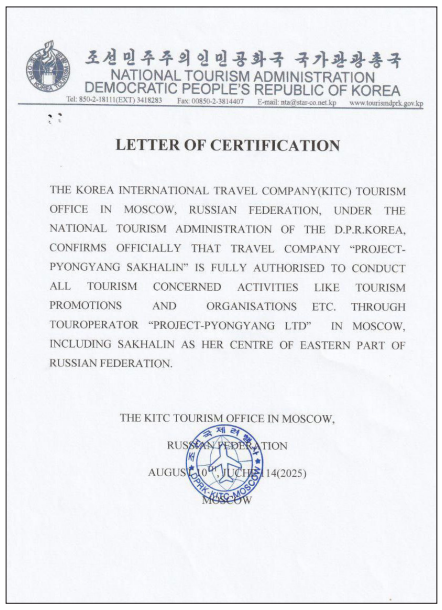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т Сахалина до Пхеньяна: туризм как мос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2026 году практическим воплощением нового этапа в 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и КНДР станет уникальный проект, напрямую связывающий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Инициатива ООО «Проект Пхеньян-Сахалин», презентованная в посольстве КНДР в Москве главой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Арсенал» Чон Алексеем,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д особым статусом. Компания получила в ноябре 2025 года официальную аккредитацию от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туризму КНДР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зма Коре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турист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КНДР в России), став ключевым оператором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регуляр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Это событие не только открывает практические пути для диалога, но и наполняет конкретным содержанием дух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тметим, чт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оект Пхеньян-Сахалин»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туроператором на Сахалине, занимающимся турам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Уже весной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отправиться по новому маршруту в курортные зоны КНДР. Участников туров ждет знакомство с уникальными природными пейзажами, объектами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глубокое погружение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Однако авторы проекта видят своей целью не только показать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В планах —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через организацию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традиционному искусству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инициативы является ее социальная миссия. Пр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관광총국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ETTER OF CERTIFICATION

THE KOREA INTERNATIONAL TRAVEL COMPANY(KITC) TOURISM OFFICE IN MOSCOW, RUSSIAN FEDERATION, UNDER THE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OF THE D.P.R.KOREA, CONFIRMS OFFICIALLY THAT TRAVEL COMPANY "PROJECT-PYONGYANG SAKHALIN" IS FULLY AUTHORISED TO CONDUCT ALL TOURISM CONCERNED ACTIVITIES LIKE TOURISM PROMOTIONS AND ORGANISATIONS ETC. THROUGH TOUROPERATOR "PROJECT-PYONGYANG LTD" IN MOSCOW, INCLUDING SAKHALIN AS HER CENTRE OF EASTERN PART OF RUSSIAN FEDERATION.

THE KITC TOURISM OFFICE IN MOSCOW,
RUSSIAN FEDERATION
AUGUST [illegible] CH-2014(2025)
MOSCOW

поддержке АНО «Сердца зов» новый канал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реабилитации и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го лечения с применением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ы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их семе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логичным продолжением и развитием существующей гуманитарной практики.

Да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новый турпродукт. Это — живой мост для углубления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диалога,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и открытия новых горизонт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спех «Проекта Пхеньян-Сахалин» станет конкретной моделью для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глядно показывающей, как региона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способствуют реализации обще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цели.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Более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помощи детям собрали на ярмарке «День добрых дел»

24 января в рамках Года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ке ТРК «Сити-Молл» состоя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акция-ярмарка «ЗД: День добрых дел». Её цель — объединить жителей для помощи дет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ярмарке, в которой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творческие объедин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волонтеры,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изделия и кухн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халина. Царила атмосфера творчества. Проходил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 сцен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города и солисты. Песни, танцы, музыкальные номера создавали неповторимую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Как всегда, порадов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ДШИ «Этнос». Запомнилось выступление ученицы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отделения вокала Ким Аёны (9 лет).

«Мы тоже внесли свой вклад в это доброе дело. Активисты сообщества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совместно со студией «Инбок» организовали яркую и гостеприимную площадку. Гости ярмарки с большим интересом знакомились с корейскими угощениям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пампушками со сладкой фасолью, мармеладным желе, острой кимчи и сладкой морской капустой.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ись мастер-классы: участники с увлечением создавали открытки с элементам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 ханбок (한복) и учились готовить вкуснейший чумок-бап (주먹밥). Для нас было очень важно не просто поучаствовать, а показать красоту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через кухню и творчество.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 сделать это в помощь детям. Вся прибыль от продаж нашей продукции была перечислена в общи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KOWIN Че Гым Су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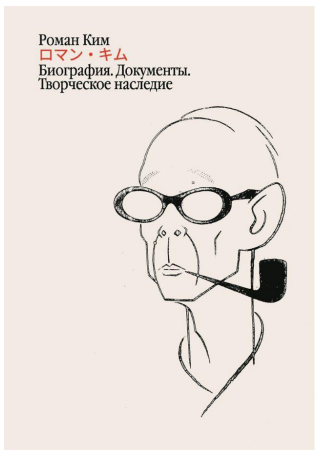
Общая сумма, собранная на ярмарке все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оставила более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Все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лечение и покупку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для детей с ОВ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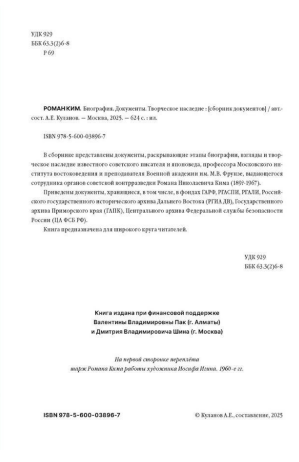
Мероприяти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оказало, что взаимопомощь и дружеская атмосфера совмест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е имеют границ, а культура каждого народа становится ценным вкладом в общее благое дело.

Виктория БЯ

В Москве вышел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свящённый советскому разведчику и писателю Роману Киму

Необычная история создания этой книги началась с репоста именно в наш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Коре-сарам. Тогда, в октябре 2023 года, писатель и журналист Александр Куланов, главный биограф Романа Кима, предложил рукопись этой книги для публикации Институту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и получил предложение, от которого, увы, он смог отказаться. А именно: академ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предложил выпустить книгу о Киме, сократив её в 3 (!) раза и издав тиражом … 5 (!) экземпляров.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ради надо заметить, что в Институте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все-таки издали этот сборник, но, как и обещали, две трети текста в книгу не вошли.

Но мир, как известно, не без добрых людей, особенно, если это наши подписчики. И вот, благодаря инициативе 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кинопродюсера и документалиста Валентины Ким (Пак) и нашим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спустя два года, эта книга всё-таки увидела свет и вышла в Москве в полном издании, без сокращений, с фотовкладками и объёмом 624 страницы. Всем поклонникам творчества и биографии Романа Кима сделан шикарный подарок, достойный памяти этого удивительного и легендарного человека. Поздравляем всех нас с этим событием, отдельн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автору-составителю Александру Куланову и Валентине Ким. Без вас этой книги бы не бы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занимаем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обрести книгу можно у нас, написав сообщение в телеграм @DmitryS495 или на почту dmitryshin@mail.ru.

Дмитрий ШИН
https://koryo-saram.site/roman-kim-biografiya-dokumenty-tvorcheskoe-nasledie

В столицу возвращаются трамваи

Сеул, 27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в Сеуле начнутся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е пробные запуски трамвая Wirye Line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епо, путей и другой баз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ообщило город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рамвайная линия Wirye, которая впервые за 58 лет вернет в Сеул трамваи, курсирующие по улицам,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от станции Мачхон на линии № 5 до станции Бокчжон, обслуживающей линию № 8 и линию Суин-Бунан, а также до станции Намвире на линии № 8.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ервый вагон проехал более 5000 километров в ход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испытаний на испытательном полигоне Осон, завершив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верки. Сеул планирует поэтапно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10 трамвайных составов до мая. С февраля в город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окончательная эксплуатационная проверка на действующей линии. К августу трамваи пройдут пробные поездки по 16 категориям, включая проверку безопасности движения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наземными объектами.

Параллельно с этим с апреля по декабрь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комплекс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истемы для оценки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возможности подключения всех объектов перед открытием. Учитывая, что трамвай будет ездить по дорожному покрытию, власти Сеула заявили, что приоритетом для них является безопасность пешеходов и водителей. На 13 перекрестках и 35 пешеходных переходах вдоль трамвайного маршрута будут дежурить сотрудники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спе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мониторинга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режиме ожидания.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участвующие в тестовых поездках, застрахованы на случай возможных аварий.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призвали пешеходов следовать сигналам и указаниям сотрудников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е отвлекаться при переходе дороги. Водителям следует снизить скорость, соблюдать безопасную дистанцию и следить за сигналами, указывающими на приоритет трамвая. «Мы обеспечим тщатель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проверку, чтобы граждане мог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сервисом безопасно и с комфортом», — сказал Лим Чун Гын, глава город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город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Самодостаточная оборона – противовес стратегии США

Достижение «самодостаточ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основным принципом военной политики стран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комментируя новую оборонную стратегию США,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ервостепенную роль РК в её обороне.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ной стратегии Пентагон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говорится, что РК способна взять на себя «основ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держива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но более огранич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США. «В условиях нестабиль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туации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стижение самодостаточной обороны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основным принципом», — написал Ли Чжэ Мён в своём аккаунте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X.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бы РК не смогла защитить себя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её расходы на оборону в 1,4 раза превышают ВВП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она обладает пятой по величине военной мощью в мире. «Надёжная самодостаточная оборона и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еспечат устойчив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подчеркнул Ли Чжэ Мён.

Умер бывш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Ли Хэ Чхан

Бывш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Ли Хэ Чхан, занимавший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и мирному воссоединению Коре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страны, скончался 25 января во время деловой поездки во Вьетнам. Ему было 73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овета, смерть наступил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больнице Хошимина в результате остановки сердца. 22 января, перед отъездом во Вьетнам, Ли Хэ Чхан жаловался на плохое самочувствие, а по прибытии туда его состояние ещё больше ухудшилось. Он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о в аэропорту Хошимина он потерял сознание и был доставлен в отделение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В машине скорой помощи произошла первая остановка сердца, но медикам удалось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его состояние. В больнице произошла вторая остановка сердца, и предпринятые реанимационные действия оказались безуспешными. Ли Хэ Чхан был депута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семи созывов, занимал пос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о Му Хёна с 2004 по 2006 год.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и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проведут с 27 по 31 января гражданскую панихиду по покойному бывшем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и депутат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Ли Хэ Чхану в знак признания его вклада в историю страны.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едложил ввести «налог на сахар»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едложил вести «налог на сахар» для сокраще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сахара и увеличени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налогично налогу на табачные изделия.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публиковал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в своём аккаунте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X (ранее Twitter). Он процитировал также статью с результатами опроса, показавшего, что около 80%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лог на компании, использующие чрезмер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ахара в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сигаретами, мы могли бы ограничить потребление сахара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лога и реинвестировать эти доходы в укрепл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писал президен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коло 120 стран применяют аналогичные меры на основе рекомендаций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Более 80% иностранцев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носятся к РК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я за 2025 год,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0 январ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уровень симпатии иностранцев к РК составил 82,3%. Это на 3,3%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а также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проведения подобных опросов в 2018 году.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импатии зафиксирован в Объединё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ах – 94,8%. Далее следуют Египет (94,0%), Филиппины (91,4%), Турция (90,2%), Индия (89,0%) и Южноафрика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88,8%). Примечателен резкий рост симпатии со стороны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Таиланда. Уровень симпатии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ырос на 9,2%, составив 87,4%, а в Таиланде на 9,4% до 86,2%.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стала единственной европейской страной, показатель которой превысил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В Китае и Японии, где уровень симпатии традиционно ниже, также зафиксирован рост. В Китае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на 3,6% до 62,8%, а в Японии на 5,4% до 42,2%. В 2018 году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в Японии лишь 20,0%.

RKI

Посольство РФ в Сеуле поблагодарило Южную Корею за спасение "Георгия Ушакова"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правило официальное письмо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в адрес 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лужбы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БО РК) за действия по спасению российского грузового судна "Георгий Ушаков", оказавшегося в аварийной ситуации в Восточном (Японском) море в условиях шторм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Управлении СБО РК,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выразила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за "быстры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меры", принятые корейскими спасателями в условиях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погоды, отметив, что эти действия обеспечили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моряков. В письме также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операция стала примером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море.

Напомним, что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13 января, когда грузовое судно под российским флагом "Георгий Ушаков" во время плавания в районе острова Уллындо потеряло управление из-за неисправности двигателя. На борту было 14 членов экипажа. В этот момент в акватории действовало штормово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 сильный ветер и высокие волны создавали угрозу сноса судна к побережью, что могло привести к аварии и вторичному загрязнению моря.

СБО Кореи направила в район происшествия два патрульных корабля. Прибывшие к сухогрузу корабли СБО РК, несмотря на штормовые условия, сумели подсоединить буксирный трос и временно сдержать дрейф судна в сторону остров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крупнотоннажное судно находилось под активным контролем более 14 часов. Затем спасательные службы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отслеживали изменения погоды и траекторию дрейфа судна, предпринимая меры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е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с побережьем Уллындо. В итоге все завершилось благополучно.

Корейские морские спасатели заявили, что данный случай стал примером принцип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безопасность людей и мореходства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судна. Глава 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БО РК Ким Ин Чхан заяви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намерена и далее укрепля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превентивны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судов, следующих через Восточное (Японское) мор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им Чен Ын открыл крупнейший в КНДР курортный комплекс с горячими источниками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открытии обновленного курор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для трудящихся в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Хамгён.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с учетом грядущего съезда партии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дводят итоги своей работы, демонстрируя готовые объекты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отдыха.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Ким Чен Ын 20 января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нпхоского дома отдыха для трудящихся в уезде Кёнсон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Хамгён, что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КНДР. Это крупнейший в стране курорт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базе природного горячего источника Онпхо, признанного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иродным памятником.

Особый символизм мероприятию придал тот факт, что именно этот объект в 2018 году стал объектом резкой кр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Тогда Ким Чен Ын называл состояние курорта "хуже аквариума с рыбами", "по-настоящему неряшливым" и упрекал ответственных лиц в том, что подоб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рочит наследие"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После той инспекции было отдано распоряжение о корен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объекта с превращением его в "комплексную 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ую и лечебную базу".

Теперь же вождь остался доволен увиденным. Ким Чен Ын отметил, что все зоны "практично и гармонично размещены", а архитектурные решения органично вписаны в природное окружение. Он напомнил о своих прежних жестких высказываниях и заявил, что, видя превращение объекта в "достойную базу отдыха для народа", испытывает чувство выполненного дела. Судя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 фотографиям, вождь личн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термальные залы и комплексы с ваннами, где в это время отдыхали корейцы.

Ким Чен Ын в ходе визита на курор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артийные достижения должны выражаться не в отчетах, а в "ощутимых для людей практических выгодах".

Отметим,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лидер КНДР одно за другим посещает новые или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е,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ные объекты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ли индустрии отдыха.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дводи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й итог работе и демонстрируются результаты, достигнутые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с учетом грядущего IX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где будут поставлены новые задачи на очередную пятилетку.

Одновременно обращае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и то, что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 скупится на жесткую кр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управленческой элиты, если считает, что имели место ошибки. Так, всего за день до поездки на курорт Онпхо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ый объединенный завод "Рёнсон" в Хамхыне - ключевое предприятие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базов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ам он резко раскритиковал затягивание работ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прямо на месте распорядился об отставк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урировавшего проект. В своей речи Ким Чен Ын использовал крайне резкие формулировки, обвиня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аппарата в самоуспокоенности, без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неспособности адекват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меняющуюся внешнюю обстановк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медиа представили этот шаг как сигнал всему корпусу чиновников о недопустимости формализма и инертност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ультура становится выгодным предметом коммерции

Сеул, 26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На фоне всплеска интереса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родажи товаров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музеях Южной Кореи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достигли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годовой объем продаж превысил 4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ный фонд Кореи сообщил, что годовой объем продаж MU:DS, бренда культурных товаров, недавно превысил отметку в 4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27,8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 впервые с момента основания фонда в 2004 году. Эта важная веха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сего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октябре объем продаж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 3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Чиновники назвали эту цифру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ой, 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кончате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вырасту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подсчитаны продажи в офлайн-магазина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онлайн-покупки и доходы от лицензирования.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продажи резко выросли на фоне всеобщего интереса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С апреля по июнь еж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составлял в среднем около 2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но в июле он подскочил почти до 5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а в августе снова превысил эту цифру. Всего за два месяца продажи продукции MU:DS превысили 1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зея отчасти связывают этот всплеск интереса с возобновлением внимания миров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следию после выхода в июне мультсериала Netflix «KPop: Охотники за демонами», который вызвал новый всплеск интереса к традиционным мотивам и образам,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в фильме.

Популярность MU:DS также повлияла на посещаемость музее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1 декабря минувшего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Кореи принял более 6 миллионов посетителей, что стало рекорд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с момента открытия учреждения в 1945 году. Сейчас фонд выходит на зарубежные рынки. Продукция MU:DS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 Японии на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е в Осаке и Кансае в мае, а в октябре бренд открыл свое первое постоянное реклам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Гонконге.

Анивский детский сад станет образцом для модернизации други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Детский сад № 8 «Сказка» в городе Анив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обрел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й облик. С инженерными и дизайнерскими решениями, использованными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знакоми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о его мнению, многие наработки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в других детсад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Семья»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Масштаб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нацелена на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семей с детьми, укрепление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частности, выделение регионам средств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сдела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дву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Это детский сад № 55 «Веснуш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8 «Сказка» в Аниве.

«Сказку» в качестве объект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выбрали не случайно.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добротное здание, возведенное в 1975 году, способно прослужить еще не один десяток лет. Но вот инженерные системы, прилегающая территория нуждались в серьезном обновлении. В ходе работ строители заменили дверные блоки, выровняли стены, уложили линолеум и керамогранитную плитку. Они также смонтировали новое ограждение лестничных проемов, обновили сети электро-, водо-,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и канализации,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ую охранно-пожарную сигнализацию, систему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 Участи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проекте «Семья»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одить комплексную модернизацию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е ограничиваться косметическими работами. Примером может служить преображение детского сада «Сказка». Теперь это совреме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которое отвечает всем существующим требованиям. Здесь у малышей счастливые лица, видно, что им тепло и уютно, время в детсаду они проводят с пользой. Перемены вдохновил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на внедр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дисциплин. И сегодня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ада изучают основы инженерии,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учатся снимать мультипликационные фильмы. Считаю, детский сад «Сказка» может послужить образцом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модернизации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на стенах внутренних помещений детсада размещен мурал с информацией об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 Николае Рудановском, исследователе Сахалина, Нижнего Амура, Приморья и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 В ходе подготовки к ремонт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усилить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мпонент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Поэтому при оформлении помещений мы разместили на стенах иллюстрации и надписи со сведениями о нашей малой родине, о ее истории.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потому что задача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 не только присматривать за детьми, но и воспитывать патриотически настроенных граждан. А любовь к своей стране начинается с детства, с познания родного края,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группах организовано так,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максимальный комфорт для детей. Например, спальня в старшей группе с легкостью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ый зрительный зал с подиумом. И теперь здесь можно разыгрывать сценки, читать стихи и сказки, а также смотреть кино.

В одном из помещений учреждения находится небольшая студия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кукольных мультфильмов. Судя по набору героев, малыши экранизируют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 Мы удели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В частности, с помощью отече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иктоМир» наши малыши, еще не умея читать и писать, получают первичные инженерные знания, навыки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 поделилась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адом «Сказка» Алена Зайцева.

В 2026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 «Семья» будет провед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етских садов № 11 «Ромаш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7 «Солнышко», № 23 «Золотой петушок» и № 8 «Островок» в Корсакове, а также средних школ в селах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Бошняково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станет доступне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их семей

С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в России заработала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виде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для демобилизова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и оформлении контракта для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больше н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оценка среднедушевого дохода семьи. Право на поддержку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ся статусом участника СВО и его готовностью к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же новыми правилами предусмотр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заключ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на супруга(у) участника СВО, имеющего инвалидность I или II группы.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выполняемого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всесторонней поддержке семей, члены которых выполняли воинский долг.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является конкретным и действен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этого проекта,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устойчивости семей ветеранов.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поддержки потреб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органы соцзащиты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включая паспорт, подтверждение участия в СВО, а также обязательную рекомендацию от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котору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ри личном обращении. Центральным элементом заявки станет продуманный бизнес-план. Макс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контракту составляет 350 000 рублей.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для вернувшихся со службы земляков максимально понятные и рабочие условия для старта в мирной жизн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ие цели:

-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инструментов и техники;
- аренду помещений, закупку сырья или товаров;
- развитие бизнеса: создание сайта, рекламу, оплат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лично в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мотрение заявления займёт не более 10 рабочих дней. После одобрения бизнес-плана специальной комиссией заключается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и средства поступают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Участник программы предоставляет ежемесячный отчёт о целев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редств.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горячей линии: 8(800)201-00-99.

Более 75% из числа первых «земских уч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брали регион для постоянной жизн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рограммы

Программа «Земский учитель», инициированная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и реализуема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подтверждает свою долгосрочну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на Сахалине. Знаковым итогом стал 2025 год, когда завершился обязательный период работы для первого потока педагогов, прибывших в 2020 году. Из 39 учителей-первопроходцев 30 человек (77%)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островным регионом, продолжая свою 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сего за период с 2020 по 2025 год в область приехали 99 педагогов из 24 регионов РФ.

Этот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закрепления кадров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б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осознанном выборе Сахалина как места для жизн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реализац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грамма «Земский учитель» доказала, что является не разовой мерой, а эффекти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Она не просто закрывает вакансии в школах, но и способствует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а, привлекая и закрепля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ц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Такой высокий процент закрепившихся в регионе земских учителей после истечения обязательного срока, - наилучшая оценка её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ы видим не просто выполнение условий договора, а осознанное желание стать частью 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растить здесь детей, вкладывать душу в местные школы. Эти учителя привезли с собой новые методики, иной опыт и, что крайне важно, искреннюю преданность профессии. Они уже не “приезжие специалисты”, а полноценные драйверы развития на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Учител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чают, что программа дала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ить весомую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в 2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о и найти своё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призвание в уник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ля многих она стала трамплином и для личного роста, открыв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воим опытом делится Инга Белова,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школы №18 села Синегорск, приехавшая на Сахалин в 2020 году из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имо преподавания, она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 школьную жизнь: в 2025 году педагог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также возглавляет первичное отд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в своей школе.

– Просто вести уроки мне было бы скучно. Для меня профессия – это живой,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открывать мир и самих себя. Где бы ты не находился – на селе, в городе – у тебя всегд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Миссия учителя на селе – показать детям, насколько многогранен и разнообразен наш мир: организовать ту самую экскурсию, прочитать ту самую книгу, которая перевернет сознание. Ты отдаешь детям частичку своей мысли, своего сердца, и однажды видишь, как она реализуется в них, – делится Инга Белова.

Еще один яркий пример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новаторства – опыт Ольги Росугбу, учителя химии и биологии школы №4 села Таранай. Выйдя за рамки предмета, она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ое для области направление – агроклассы. Эта работа ведётся в русле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для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является современной формой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школьников.

- Когда я узнала о программе, сразу поняла, какая это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меня, - говорит земский учитель. - Я всегда мечтала работать в небольшой школе, и на Сахалине моя мечта осуществилась. Сельский учитель – тот, кто к детям имеет более близкое отношение, потому что знает всех учеников лично, формируется тесная, доверительная, более тёплая связь. В нашем агроклассе мы не только изучаем биологию и химию, но и думаем о том, как применять эти знания здесь и сейчас, на своей земле. Ребята видят, что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марикультура – важное, ответственное и перспективное дело. Это очень вдохновляет.

В 2026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одолжает набор по программе «Земский учитель», сохраняя повышенн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До 15 апреля открыт приём заявок на 5 вакансий. В Охинской, Ани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Холмском и Корсаков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ах ждут учи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математики, биологии 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мэры и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е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ключены в процесс сопровождения программы на всех этапах – от подачи зая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ного отбора до заключения трудового договора и поддержки педагогов на местах.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грамма «Земский учитель»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в решении кадрового вопроса и повышени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амках обще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оручению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ограмма продлена до 2030 года. Участники, переехавшие на работу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олучают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в 2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олонтеры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обсудили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инициативы жителей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очередную встречу с волонтерами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 время неформального общения добровольцы обсудили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запросы, поступающие от населения.

Проект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объединяет программы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медицинск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газификаци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инициативы, призванные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Забота, защита и уважение – это главный подход в работе сахалинских властей. Этот проект отличает нашу область от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нимание, которое мы уделяем людям, сплачивает общество, делает его сильнее. Вместе мы наводим порядок в каждом дворе, обеспечиваем жителей льготными лекарствами, делаем доступнее медицин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услуги. Благодаря нашему совместному тру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встреч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лонтеры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работают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х более 300. Задача добровольцев – информировать жителей о программах и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ми он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а также собра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населения.

— Мы обходим жителей нашего города. Стучимся в каждую квартиру и оповещаем о программах,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егионе. Спрашиваем, знают ли о них люди, пользуются ли ими. Если не пользуются, то рассказываем, как их применить в жизни. Кроме того, жител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к нам с любым вопросом – о медицинском обслуживании, коммунальных проблемах, о состоянии дорог. Мы оперативно передаем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Губернатор регулярно встречается с нами. И мы можем напрямую рассказать ему о том, что волнует людей, — поделилась волонтер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сения Опарина.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с добровольцам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подвел итоги работы команды губернатора за 2025 год и рассказал о предстоящих задачах. Та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лен проект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оддержку семей с детьми и будущих мам. Продолжится программа газификации и реформы в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еред областным минздравом стоит задача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дени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операций, чтобы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не приходилось выезжать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на материк.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роектов региона остается кампус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В открытии первого объекта кампуса –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на 1,5 тысячи мест -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2027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상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정치·행정·학술 분야 모인다

재외동포청 · 한국경영학회, 한상경제권 활성화 전략 특별 포럼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세계 한상(韓商)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용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국경영학회, 아시아비즈니스혁신학회와 함께 '한상경제권 활성화 전략 특별 포럼'을 열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상경제권 구축은 국익에 기여하는 동포 역량을 극대화하여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이를 위해 정-관-학이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들도 기념사와 축사를 통해 한상경제권의 중요성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박정은 교수(이화여대)가 '한상경제권 관련 정책 이슈'를 발제하고, 변진호 교수(이화여대)가 '한상경제권 현황 분석'에 대한 발표를, 송태호 교수(부산대)가 '한상경제권의 개념 정립', 최정혜 교수(연세대)가 '국제디아스포라 비교분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재외동포청은 한상 경제권 구축을 통해 생산과 소비, 교역과 투자, 인력이동이 상호 시너지를 내는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시행… '하이코리아' 로 간편 신고

직종 · 업종 · 연간소득 온라인 신고…출입국 관서 방문 불필요

E-1~E-10 · F-2 · F-4 · H-2 등 대상…변경 시 15일 내 신고

2026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고 전면 전환

법무부가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외국인이 직종·업종·연간소득 등 취업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서면 중심 절차를 개선해, 지난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캡처 화면. 한글, 영문, 중문으로 제공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서면 중심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고 대상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체류자격별로는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와 함께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가 해당된다. 다만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시기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시이며, 이미 신고한 취업정보 가운데 직종이나 업종이 변경되거나 연간소득 '구간'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동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당시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던 외국인이 이후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영리활동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대상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소폭 변동될 때마다 신고하는 방식은 아니다. 법무부는 '소득 없음'부터 '5000만 원 이상'까지 총 7개 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이 변경될 경우에만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는 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민원 메뉴의 '취업정보(변경)신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온라인 신고와 함께 기존 외국인 직업 신고서 또는 통합신고서를 이용한 서면 신고도 병행된다.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며,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나 비예약 방문자 역시 관서 방문 전 온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법무부는 변경 신고 기한인 15일을 넘긴 경우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며, 기한 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는 자동으로 즉시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적·의도적 불이행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최종 결정한다.

한편 부업이나 겸업 등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된' 직종·업종·연간소득만 신고하도록 했다. 주된 직장은 근로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무부는 이번 온라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취업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우리말로 깨닫다]

우리 몸과 우리 땅은 하나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은 원래 불교의 용어입니다. 신토(身土)는 불교대사전(홍법원 출판)에 따르면 범부나 성자가 사는 육신과 국토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일본의 식양학자(食養學者) 사쿠라자와 선생에 의해서입니다. 일본 식양회의 표어로 1912년에 사용된 것이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을호 선생에 의해서 1990년대 농협 표어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졌고, 가수 배일호의 '신토불이'라는 노래로 대중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을호 선생의 정의에 따르면 신토불이는 인간과 지구, 곧 자연환경이 하나로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철에 우리 땅에 나는 음식이 우리에게 좋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연환경을 소중히 하는 생태학적 태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을호 선생의 책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에는 신토불이에 관한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사쿠라자와 선생의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강연에서 사쿠라자와 선생은 '조선의 김치'는 신의 작품이라고 하였답니다. 식민지 조선의 음식을 신의 작품으로 평가한 것도 놀랍고, 당시가 김치 먹는 조선인을 차별하던 시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사쿠라자와 선생이 신토불이를 주창한 학자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신토불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설명한 이을호 선생의 논의는 지금 돌이켜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쓰인 재료가 모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안의 울타리 안이거나 앞뒤로 뻗어있는 널따란 들판이거나 아니면 뒷산 마루턱에서 또는 아침저녁으로 드나드는 논밭에 가꾸어놓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류 생성, 발전의 철칙이 되어 있는 채식주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3. 계절감각이 뛰어나다. 4. 모든 재료가 조화되어 감칠맛 나는 하나의 맛을 내고 있다. 묘합(妙合)의 원리가 깊숙이 도사리고 있다. 신토불이 정신은 우리 음식문화의 핵심입니다.

신토불이는 다양한 설명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주변의 먹을거리에 맞게 진화하여 왔을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살고 있는 주변의 산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외의 다양한 식재료를 구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가까이 있는 재료를 활용해야만 했을 겁니다. 어쩌면 신토불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생각해 보면 낯선 곳에 가면 물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과 물도 둘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곳에 익숙해져 있기에 다른 물이 들어오면 내 몸이 금방 탈이 나는 겁니다.

알레르기도 비슷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꽃가루, 땅콩 등의 알레르기는 그런 식물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 또는 민족이 일으키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새 집 증후군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나 화학 약품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알레르기나 증후군에도 끄떡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을 갈아 마셔도 멀쩡한 사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고춧가루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저는 한민족이 도토리를 좋아하고, 잣을 좋아하고, 쑥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토불이의 대표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이 원산지인 것은 모두 우리에게는 신토불이입니다. 또한 원산지는 우리 땅이 아니어도 오랫동안 우리 땅에서 자라났다면, 신토불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감자, 고구마, 향신료 등이 몸에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에 따라서는 익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토불이는 우리 것을 사랑하자는 표어이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표어이기도 합니다. 신토불이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음식문화를 살펴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 왜 그 음식을 먹지 않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음식문화 이해의 기본은 신토불이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Та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удятся около 3 000 сотрудников, большинство - женщины. 7% из них - Татьяны. В частности, 13 Татьян ежедневно обеспечивают доставку почты в качестве почтальонов. Ещё 17 сотрудниц работают операторами в отделениях и помогают клиентам решать возникающие вопросы и проблемыю

Также восемь женщин с этим именем возглавляют почтовые офисы, а 36 трудятся в аппарате управления областной Почты и почтамтах. Кроме того, 11 сотрудниц по имени Татьяна работают сортировщицами в магистральном сортировочном центре (МСЦ).

Одна Татьяна работает ведущим инженером, а ещё одна - в должности инспектора.

"Женщин привлек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рядом с домом, официально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нерабочие активности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и их детей, социальный пакет. Он включает компенсацию путёвок, новогодние подарки, страхование от болезней и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платы семьям с низким достатком", - отмет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отделении Почты России.

사할린서 게 16마리 불법 포획… 차량・보트 몰수

홈스크 구역의 한 주민이 게 16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호브 마을 인근에서 불법 포획을 하던 중 해안경비대에 의해 체포됐다.

주 검찰청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해 6월 10일 자신의 토요타 라이트 에이스 차량을 이용해 타타르 해협 연안으로 이동한 뒤 불법 포획 행위를 저질렀다.

당국은 “피의자는 선외기가 장착된 고무보트를 이용해 킹크랩 15마리와 털게 1마리를 포획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사할린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산하 해안경비대원들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포획된 게들은 모두 자연 서식지로 방사됐다. 이로 인해 예방된 피해액은 총 22만 9,428루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할린 주민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256조 제1항 ‘가’, ‘나’, ‘다’호에 따라 기소됐으며,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법원은 임금의 5%를 국가 수입으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8개월의 교정 노동형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토요타 라이트 에이스 차량과 마린 로켓 선외기가 장착된 스톰라인 고무보트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На Сахалине у браконьера забрали микроавтобус и лодку из-за 16 крабов

Житель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попал под суд за 16 крабов. Он вёл незаконную добычу в районе села Чехов, где его и задержали пограничники.

В областной прокуратуре сообщили, что мужчина промышлял 10 июн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у побережья Татарского пролива, куда он приехал на своём автомобиле Toyota Lite Ace.

"С помощью резиновой лодки, оборудованной руль-мотором, он выловил 15 особей краба камчатского и одну - краба волосатого четырёхугольного, после чего его преступ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была пресечена сотрудниками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и в ведомстве.

Крабов выпустили в естественную среду обитания. Предотвращенный ущерб составил 229 428 рублей. Сахалинца судили по п.п. "а", "б", "в" ч. 1 ст. 256 УК РФ, он полностью признал свою вину.

Суд назначил наказание в виде 8 месяцев испра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с удержанием 5% из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доход государства и конфисковал Toyota Lite Ace, надувную резиновую лодку Stormline с руль-мотором Marine Rocket.

야쿠츠크 한 학교 식당에 로봇 웨이터 도입

야쿠츠크 제40호 학교 식당에서 자율주행 로봇 웨이터 ‘BellaBot’이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야쿠츠크시 교육국은 이 소식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앙증맞은 귀와 커다란 고양이 눈이 그려진 대형 화면을 갖춘 이 로봇은 급식 당번 학생들이 음식 쟁반을 나르는 일을 돕는다.

BellaBot은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장애물 감지 센서, 여러 개의 쟁반 선반을 갖추고 있어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여러 단으로 구성된 선반은 급식실의 배식 처리 효율을 높여주며, “조심하세요, 뜨거워요!”라는 음성 안내 기능도 탑재돼 있다.

해당 기관 공보실은 학생들이 로봇 도우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로봇은 시험 운영 단계에 있으나, 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시내의 다른 대규모 학교들에도 이러한 스마트 보조 로봇을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Милый робот-официант появился в одной из школ Якутска

Первый автономный робот-официант BellaBot начал работу в столовой школы № 40 в Якутс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в Telegram-канале.

Сотрудник с причудливыми ушками и большим экраном, на котором изображены большие кошачьи глаза, помогает школьникам-дежурным разносить подносы с едой.

BellaBot оснащен системой навигации, датчиками препятствий и несколькими полками для подносов, что исклю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толкновения. Несколько встроенных полок для подносов увеличивают пропуск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столовой. Робот также умеет проигрывать звуковой сигнал «Осторожно, горячо!».

Как отмечают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едомства, дети в восторге от роботизированного помощника.

Робот работает пока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но в управлении образования допускают, что такие умные помощники могут появиться и в других крупных школах города, если эксперимент пройдет успешно.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